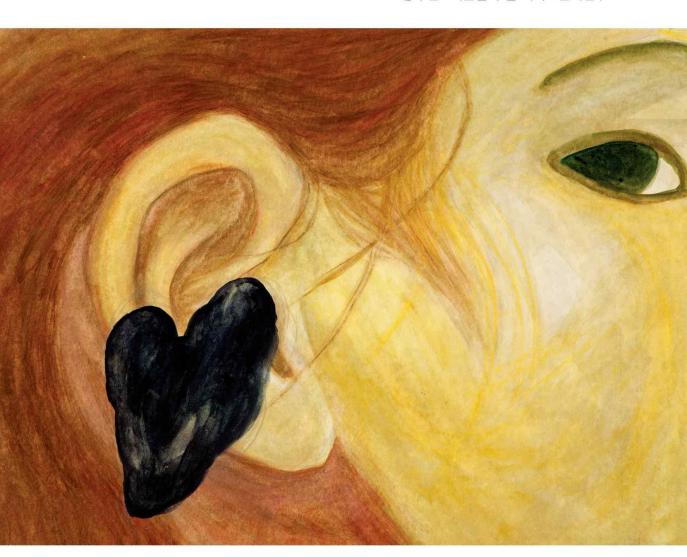
#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지-윤리〉 연속심포지엄②

# 극회자와성

2012 · 10 · 5 음 오후 2시 명동 청어람 소강당

<sup>(1)</sup>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지-윤리〉 연속심포지엄②



**발행일** \_ 2012년 10월 5일

**발행인** \_ 홍정길 **편집인** \_ 조제호 **편 집** \_ 박진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 www.cem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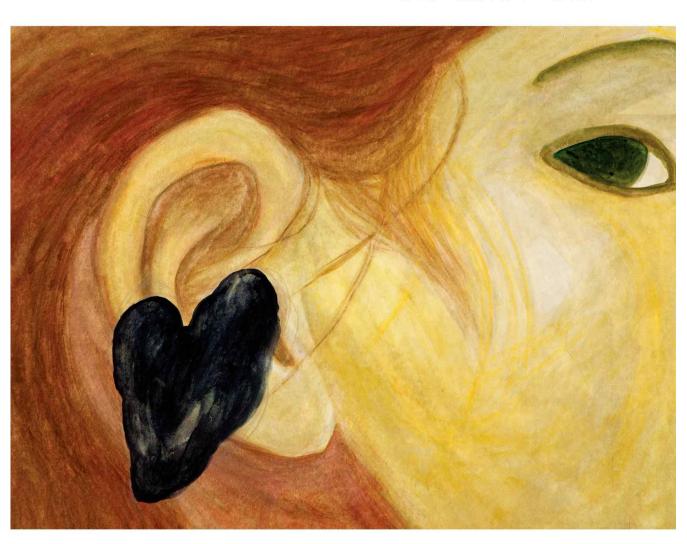
- \*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앙코르지이며, 내지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입니다.
-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행사 이후 PDF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②

# 목회자와성

2012·10·5 @ 오후 2시 명동 청어람 소강당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u> 1</u>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유리연구소〈목회자·유리〉연속심포지엄②

# 복회자와성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오후 2:00-2:05	환 영	<b>임낙형</b> 부소장 (기독교윤리연구소, 성결대학교 기독교윤리학)
2:05-2:10	인 사 말	<b>이상원</b> 소장 (기독교윤리연구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2:10-2:30	기조발제	<b>신원하</b>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2:30-3:05	주제 발제 1	<b>김혜령</b> 박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3:05-3:15	휴식시간	
3:15-3:50	주제발제 2	<b>하재성</b>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3:50-4:25	주제발제 3	<b>고직한</b> 상임대표 (청년목회자연합)
4:25-5:00	질의응답	

# 목차

シェン 6 m コ ト / 5 刻 J 0 列 / のみ H I I I I M ®

# 복회자와성

▋기조발제	
목회자의 성, 불편한 그러나 철저히 연구되어져야 할 주제 신원하 교수 _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07
<b>■ 주제발제</b>	
1. 한국교회의 성도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혜령 박사 _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11
2.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자원 하재성 교수 _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23
3. 목회자의 성스캔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직한 상임대표 _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39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개	0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개

기독교윤리연구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기윤실 부설로 조직되었습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일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물욕, 성욕,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는 것에 주목하여, 2011년부터 연속사업으로 목회자와 돈 문제(목회자의 경제윤리), 목회자와 성 문제(목회자의 성윤리), 목회자와 교회직분 문제(목회자의 교회정치윤리)에 대하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 장: 이상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 부 소 장 : 임낙형(성결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 총 무: 고재길(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 운영위원 : 임성빈(장신대), 신원하(고신대원), 이장형(백석대), 송준인(청량교회)

○ 연구위원 : 강진구(고신대), 김동춘(국제신대원), 김승곤(성결대), 노영상(호남신대)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추태화(안양대), 홍순원(협성대)

○ 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 ① "목회자와 돈"



• 일시 : 2011년 10월 1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 주최 :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와신학

• 기조발제 : 심포지엄, <목회자와 돈>을 시작하며

(이상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 주제발제

① 교회와 투자(박정윤 교수 영남대 경영학부)

② 하나님의 돈 : 교회 재정사용의 원칙과 방향

(황호찬 교수 세종대 경영대학원)

③ 교회 직분과 돈의 관계(신동식 목사 및과소금교회)

•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와 성> 심포지엄 기조발제

# 목회자의 성, 불편한 그러나 철저히 연구되어져야 할 주제

신 원 하 교수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기독교윤리연구소 운영위원

# I. 욕정을 부추기는 사회문화 속의 교호와 사역자

정욕(lust)은 기독교적 문화가 지배해온 사회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치명적인 죄로 인식되어 왔다. 영국의 20세기 작가 세이어즈(Dorothy Sayers)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다루는 글을 쓰면서 "다른 여섯 가지 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욕은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치명적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도덕(immorality)의 대명사처럼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은 매우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그런 시대나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성은 거리와 광장에서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다. 성애는 공공연한 볼거리요 대중적 오락 거리가 된지 오래된 현실 이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에 관련된 온갖 정보, 영상을 접하며 지낸다. 이 현상은 이미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다.

현재 성은 자본과 결탁하여 더 기승을 부리고 재생산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 철학자 크 리프트(Peter Kreeft) 교수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급속히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로 성적 어필이 빠진 상업광고는 현재 거 의 없을 정도이다. 청바지,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아파트 광고에 이르기까지 성은 자본과 결탁하여 우리 사회의 깊숙이 들어와서 성욕을 부추기고 때론 왜곡된 성관념을 조장하고 있 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상당부분이 여성의 몸매와 미모와 관련된 영상이나 그에 관한 기 사로 도배되어 있다. 이 인터넷산업은 정욕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영향을 비켜갈 수 없다. 목회지

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목사들의 성적 탈선에 관련된 보도들이 간간이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추문도 빠지지 않고 있다.

# Ⅱ. 성적 유혹에 취약한 목회자의 생활구조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목사와 성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 해왔다. 그만큼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와 성을 연결시켜 다룬다는 것 자체를 불경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들의 성추문이 교계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이것을 문제화하여 공개적으로 다루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론화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많은목사들은 목회자들이 성적 탈선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논의한다는 것이 목사에 대한 경건한 인상을 신자들에게 약화시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비록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방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에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도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성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훨씬 스트레스가 높다. 제대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면서 주간 내내 일에 내몰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처지의 성도들을 만나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늘 갖고 지내게 된다. 그런 가운데 정작 목회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건조해지게 될 수 있다. 특히 목회자들이 여가와 오락을 찾아 갈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사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서재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클릭함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들이 종종 인터넷 음란물과 포르노물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고 음란물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목사는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경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 Ⅲ. 목회자의 성추행 그리고 교회의 넘어짐과 복음의 스캔들

목회자가 포르노물에 빠지거나 성적 탈선에 연루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교회는 이 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 둘째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결국 복음사역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 목사들은 소 위 "7계"라 불리는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되면,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는 쉽지 않 게 된다. 이런 성적 탈선의 당사자인 목사들은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대개는 강하게 부인 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축소하고,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몰아가 기가 일쑤이다. 보통 교회의 당회 내지 결정권이 있는 기구나 사람들은 목사의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미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구실로 정확히 진 상을 드러내지 않고 대충 무마하거나 축소하여 처리하려한다. 최근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에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목회했던 어느 목사의 경우도 성추행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사적으로 찾아가 달래며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어" 스스로 교 회를 사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사임했고, 교회도 정확한 진상은 밝히지도 않은 채 목사의 사임을 받아 처리하고 말았다. 이 목사는 워낙 매 스컴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대개 이런 경우 목사들은 사 임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사는 이런 일에 연루되면 이미 내 적으로 스스로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이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 개인 적 또는 공적 치리와 심리적 영적인 치유 과정을 겸손하게 거치지 않은 채,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감당해 가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교인과 교회가 받게 되는 상처도 치유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먼저 당사자인 교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면 즉 목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여직원이나 신도에게 저항내지 거절할 수 없게 하여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이외로 깊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치심, 죄의식, 무력감, 분노 등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내상을 입게 된다. 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교회 목사와 성적으로 연루되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는 낙인과 교인들로부터 오는 곱지 않은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래서 대개는 그 상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되기도 한다. 해당 교회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교인들은 상처받게 되고 동요하기 마련이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깨뜨려지면서, 실망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심한 배신감으로 신자들의 영혼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특히 신앙이약한 자들은 이런 일로 넘어지게 되면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된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사역은 생각보다 큰 스캔들 즉 걸림돌에 걸려 막히게 되거나 실족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들인 목사들의 성적 비행과 탈선을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 목사를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일삼는 이중인격자로 취급할 수 있고, 예배, 설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별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적 것으로 냉소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와 교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 반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일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된다. 이런 점에서 목사의 추행은 기독교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스캔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IV. 나가면서

교회는 목사의 성적 비행과 범죄가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치르는 심각한 일이고, 자칫하면 교회의 기둥과 석가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태풍과 같은 죄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문제는 더 쉬쉬하거나 개 교회에 맡겨서는 안된다. 공론화하고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사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목회자가 실수를 넘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에 빠져있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이상, 적지 않은 교회는 이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제 교회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고 그 연구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

## <목회자와 성> 심포지엄 주제발제 ①

# 한국교회의 성도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혜 령 박사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2000여 년의 긴 역사를 거슬러오며 변함없이 이어져내려 오는 교회의 "전통적" 성인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윤리학』의 저자 스탠리 그렌즈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 답하자면,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그는 교회가 역사로부터 인간의 성 문제에 대 한 가르침을 제시할 것을 늘 요청 받아 온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들여다 볼 때 하나의 동일하고 지속적인 입장을 교회가 교인들과 세상에 제시해 오지 못했다고 본 다. 교회는 늘 세상의 문화와 생동적인 변증법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기에 교회 가 성과 관련하여 내린 가르침이란 주변 문화의 사회적 관습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이다.1)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윤리학』에서 성교, 독신, 결혼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는 초대 교회와 교부신학자들의 입장이 그들이 처했던 주 변 문화들에 따라 어떻게 달리 변화되어 가는지를 짜임새 있게 서술한다. 이렇게 성과 관련 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주변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 되어 왔음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성윤리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그렌즈는 다수의 교회 현장 에서 선포되는 성차별적인 규범들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으 로 곧장 일치시켜왔던 전통적 풍토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렌즈는 기 독교 성윤리의 역사적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지배적인 성도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교회들이 뿌리내려왔던 다양한 문화적 변이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강 력하고도 광범위하게 힘을 발휘하던 성도덕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일부 목회자들의 성적 문란과 성범죄로 인해 심각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sup>1)</sup> 스탠리 그렌즈, 『성윤리학』, 남정우 옮김, 살림, 2003, 16쪽.

# 1. 몸과 성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성(sex)은 다만 생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의 특정 신체기관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면에서 성의 생식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나 생식 활동의 주체인 부모와 생식의 결과물로서의 새 생명 모두 형상만으로 존재하는 형체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온기와 생기를 지닌 '몸'으로서 자신의 개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그 '몸'을 만들어내는 성(sex)은 근본적으로 생식기너머의 인간 육성(內性) 전체와 연결한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 혹은 '몸을 입은 인간'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때 로는 풍요의 얼굴로, 때로는 빈곤의 얼굴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변덕스러운 자연 속 에서도 생명의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확보해야 하는 인 간 존재의 끝없는 고단함을 지시하다. 더군다나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서 살아가 는 인간들은 함께 힘을 모아 자연의 변덕스러움에 대항하기보다 그들 사이의 힘의 위계질서 를 만들어 그나마 확보된 필요물들을 탈취하고 독점하는 부정의한 현실을 만들어 낸다. 매 정한 자연과 욕망의 아귀다툼이 장악한 공동체 속에서 '몸'을 입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삶을 자연스레 '고통스럽다'고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에 바탕을 둔 고대인들은 자신이 믿는 자연 신에게 삶의 안정과 복을 기원함으로써 몸의 안위와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을 지키고자 했다. '몸'을 인간존재가 경험하는 고(苦)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 힌두교나 불교는 고대자연 종교들과 출발이 같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구원이 결코 몸의 안위나 물질의 풍요에 달려있 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이 두 종교는 정신의 종교, 영혼의 종교 혹은 무아의 종교라 는 칭호를 얻는다. 인간의 몸을 포함한 현상계 전체의 열등성 혹은 비실체성에 근거한 이 두 종교는 "몸으로 난" 인간의 존재성을 결국 업(業, Karma)의 결과로 이해함으로써 "몸에 서 벗어나는" 혹은 "몸으로 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욕망에서 자유 하는" 해탈을 궁극의 목표로 삼게 된다.

이에 비해 히브리 전통을 계승하는 기독교는 인간들이 체험하는 고통의 원인을 그들이 입은 '몸'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에서 찾지 않는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연이나 실수 혹은 악한 의도로 몸을 입은 인간과 그가 사는 세계를 창조한 열등하거나 악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육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은 그의 구원사의 시작이었고, 그가 창조한세계와 인간은 보시기에 참 좋았던 아름다운 존재였다. 히브리 전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간이 체험하는 보편적 경험으로서의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인간이 지닌 '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몸'은 힌두교가 말하듯 불변하는 내적자아로서의 아트만(atman)을 가둬두는 물질도 아니고, 불교가 말하듯 여러 인연의 교차를 통해 결합하여 하나의 중생(衆 生)을 탄생시키는 오온(五蘊) 중의 한 요소인 색(色)도 아니다. 창세기 2장의 J기사에서 보자 면, 오히려 하나님이 흙(adama)으로 직접 빚은 몸이야 말로 처음부터 사람(adam)이라고 명 명되고 있으며, 곧 그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을 얻어 산 사람으로 거듭하게 하는 전(前) 존재이다. 구약 주석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J기사를 읽고 인간을 몸과 영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 은 일반적으로 이원론적 인간관이 말하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는 "숨"으로서 흙에서 빚어진 인간을 "산 존재"가 되게 한다.2) 즉 J기사는 몸을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 로 축소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창세기 1장의 P기사 역시도 몸을 인간 존재의 하 위 요소로 축소하지 않는다. 폰 라트는 1장의 주석에서 인간 창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 역시 인격이나 도덕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축소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몸이야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간의 경이로운 신체적 외관은 결코 하느님 모습의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하느님 모습이란 표상은 본 래에는 신체적 외관에서 비롯되어다. 또한 이런 본래의 이해가 P편자의 신학적 반성에서 완 전히 영화(靈化)되고 지성화 되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전인간(全人間)은 하느님의 모습 대로 창조되었다."3)

이러한 창조신앙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생(生)의 고(苦)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탐냈던 최초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타락의 결과물일 뿐이다. 창조 신앙에서 중요한 점은 고단한 몸, 고통스러운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몸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범죄가 초래한 벌로서 부여된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를 뒤집어 서 말하자면, 인간은 몸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최고의 '인간다움'을 완전하게 얻게 되며, 비록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난 타락 사건으로 최초의 온전한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렇다 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인해 그의 구원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성의식 변화를 추적하는 이 논문이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렇게 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히브리 창조신앙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P기사)와 창세기 2·3장의 창조-타락기사(J기사)는 각각 양식상의 독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성과 생식 능력을 인간 존재의 기초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1장의 경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는데, 그렌즈는 여기서인간의 생식 잠재 능력이 타락에 대한 언급 없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인간의 생

<sup>2)</sup> 게르하르트 폰 라트, 『국제성서주석-창세기』, 한국신학연구소, 1981, 81쪽.

<sup>3)</sup> 위의 책, 60-61쪽.

식능력이 타락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된 처음부터 부여된 "실존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1 그는 인간의 생식이 실제로 타락 이후에 표현된 것으로 언급하는 2장도 인간의 생식능력 자체가 죄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려는 의도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따로 창조하신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에 특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이 타락에 앞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그렌즈는 비록 인간의 생식 기능에 대한 실제적 표현이 타락 이후에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맥락에서 "인간 생식 목적의 서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밝혀진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3장 15절에서 여성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마리아의육체적 생식 능력을 통해 몸을 입고 탄생한 예수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교회가 부단히 해석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성은 인간 실존의 다른 모든 측면과 같이 이제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죄의 결과물이나 죄 자체로 곧장 일치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렌즈는 오히려 인간의 생식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도구로 쓰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약성서에서도 우리는 몸과 성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의 편지 에서다. 하지만 언뜻 보면 바울의 가르침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인간의 몸과 생식능력을 타 락보다 앞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본연의 실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창조신앙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로마서 7-8장에서 바울은 죄의 상태에 매인 인간 을 설명하며 "육정에 매인 존재",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라거나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미혼자에게 "곧 닥칠 재난 때문에,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권고하며, 결혼이 세상일에 마음을 쓰게하여 주님만 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데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몸과 결혼관계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나 클레멘트, 제롬과 어거 스틴과 같은 교부신학자들에게 독신주의를 결혼생활보다 우월하게 여기게 하고 성교행위를 죄와 관련지어 사고하게 하는 중요한 성서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바울에서 교부신학으로 이 어지는 이러한 경향성은 몸과 성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특한 통전적인 인간관을 가지 고 있는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의 복음에서 벗어나 헬레니즘의 문화권에서 강 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영육 이원론에 지나치게 경도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종종 비난받 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바울서신 연구는 바울이 <del>복음을</del> 선교하는 과정에서 헬레니 증의 문화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갈릴리 예수의 가르침과 상이한 새로운 '바울 기독교'를 창

<sup>4) 『</sup>성윤리학』, 40쪽.

<sup>5)</sup> 위의 책 41쪽. 괄호는 필자가 삽입.

시했다는 기존의 비판에 반대하여, 오히려 위에서 언급했던 구절들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신약의 윤리적 비전』의 저자 리처드 헤이스에 의하면, 간혹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 함이 좋으나"(고전 7:1하)의 구절이 종종 문맥과 떨어진 채로 독립적으로 해석되면서 마치 바울이 성에 대해 병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여성 혐오증 환자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받아 왔 다고 말한다.6) 그러나 그는 이 구절이 단지 당시 영지주의 계열의 금욕주의와 반 육체적 성 향에 경도되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서신의 수신자로 전제한 것에서 비롯된 "수사학적 기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7)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하나의 통전적인 문맥으로 이 해한다면 바울이 "현재의 결혼 관계에서조차 성적 연합을 강하게 부정하는 이상주의적인 과 도 영성(hyperspirituality)에 반대하여, 부부는 성관계를 계속해도 괜찮고 또 계속해야 한다 고 역설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8)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글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그가 단순히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강 하게 자리 잡았던 반육체주의를 기독교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바울은 비록 죄의 법에 육신이 매어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성도의 몸은 다시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고전 6:13)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지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 또한 유배되어 있는 육체와 물질세계로부터 이탈하 는 영혼의 구원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맞서 바울이 기독교의 구원은 몸의 부활(고전 15장 35절 이하)에 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히브리 전통의 창조신앙과 바울의 헬레니즘 기독교 신앙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몸의 본래적 선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할 궁극적 주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몸을 입은 인간"에게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몸을 입은 인간이 태 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적 욕망(생식과 쾌락의 욕망)이 부부간에 맺게 되는 성적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통일된 관점을 드러낸다.

# 2. 죄가 되어버린 성, 도덕의 굴레에 매인 성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원론과의 대결 속에서 "몸의 선함"이라는 창조신앙을 지키 고자 했던 바울의 노력은 3-4세기 교부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론-성육신 논쟁에 계승 되어 발전된다. 즉 정신계와 물질계의 위계질서를 주장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고에 맞

<sup>6)</sup> 리처드 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유승원 옮김, IVF출판부, 2002, 88쪽.

<sup>7)</sup> 위의 책 90쪽.

<sup>8)</sup> 위의 책, 92쪽.

서 34세기의 교회는 교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논쟁적으로 통합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 모두가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는 성육신 교리를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완성하게 됨으로써 창조신앙에서 시작된 "몸의 선함"에 대한 1-2세기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신학적으로 발전시켜 계승한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교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한 몸"에 대한 논의는 예수 이외의 나머지 모든 인간들의 몸에 확대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후 1300여 년의 교회사에서 독신주의와 금욕주의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는 몸을 입음으로써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피조물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된 데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의 다양한 욕망들 중에서 특별히 성욕을 타락의 결과물이자 죄로 이해하게 만든 데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 중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진 사람이 바로 힙포의 어거스틴이다. 그 는 창세기의 타락이야기와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죄론을 연결시키면서 기독교 신학의 독 특한 원죄사상을 성립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악의 근원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신학적으 로 완성시킨 최고의 신학자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신학사에서 그의 작업이 차지하는 엄 청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성(性)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고 백록』에서 자신이 그토록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데에 방해했던 내적인 갈등으로서의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육체적 정욕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랬는 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죄의 원인이 되는 정욕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 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을 성적인 욕망(concupiscence)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어거스 틴에 의하면 성적인 욕망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식 능 력을 실현시키는 힘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명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태고의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의 활동을 위해 생식기관을 다 른 기관들과 같이 의지의 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 생식기관을 의지로 지배할 능력이 그들에게서 퇴화하였으며, 더 이상 의지가 아니라 충동적인 욕망이 이 기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9

어거스틴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 모두의 성행위를 비의지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쾌락뿐만 아니라 출산을 목적으로 성관계까지 근본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10) 이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 녀 생산뿐만 아니라 육체적 만족을 위한 목적까지 확대하여 허용하는 바울에 비해 분명히 현저하게 후퇴한 시각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거스틴이 부모의 육체

<sup>9)</sup>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694-696쪽 참고

<sup>10)</sup> 위의 책, 686쪽.

적 성관계를 통해 그들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아담의 지은 죄를 서술하는 장인 『하나님의 도성』의 14권에서 성교의 수치스러움을 함께 서술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인간의 성관계를 죄가 전달되는 매개체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3세기 로마의 기독교 박해에 대항하여 시작된 순교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성도의 금욕주의적 생활이 314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자연스레 잦아들 수있는 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통해 오히려 강력한 신학적 정당성을 얻게 됨으로써 이후 중세교회의 수도원주의와 금욕주의, 성직자 독신주의로 심화 발전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인간 본성과 악의 기원에 대한 뛰어난 성찰에도 불구하고 쾌락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성행위, 심지어 실제적인 성행위보다 앞선 성욕까지 죄악시함으로써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며 표현하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타부시하는 경향을 만들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위에 기독교인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들은 성적 정조관념을 내포하는 '정결'이나 '순결'과 같은 강력한 도덕적 규범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규범이 한 공동체의 문화와 권력관계에 의해 생산되거나 적어도 그것들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상대적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보편적 양심의 명령으로 왜곡되어 선포됨으로써 도덕 행위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성도덕이 부여한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적 의무로 둔갑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성도덕은 남성들이 아니라 주로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여성 일반에게 '최초로 타락한 인간' 혹은 '남성을 타락시킨 인간'이라는 명에를 지움으로써 성차별적 위계질서의 하부층에서 마땅히 남성 일반으로의 아버지, 왕, 성직자의 지시와 통제를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성을 그려낸 서구 가부장적 교회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작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3. 상대적 규범으로서의 성도덕의 그늘

욕망이란 '채워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에 이미 주어진 것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더 자극적인 대상을 갈망하는 탐욕으로 전락할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과 학교, 교회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성도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몸

을 입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지니게 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 파괴적인 탐욕으로 발전하여 성적 대상으로서 만나는 상대방의 인격뿐만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역할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할수 있다.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로서 부여되는 도덕은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별적 행위마다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는 수월성과 통일성을 인간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힘으로서의 도덕을 초자아에 익히며, 이를 통해 탄생 첫 순간부터 갖고 태어난 성적 리비도를 우회적으로 사용(승화)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문명을 습득하고 문명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하는 존재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를 통해 성도덕을 정상적으로 체득하여 문명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태생적인 에너지로서의 성적 욕망은 살고자 하는 생(生)의 욕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에 매우 강력한 힘을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것을 통제하는 일은 결국 상당한 억압이 가해져야만 가능한 것이된다. 이에 도덕은 행위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를 수 있는 순한 명령체계가 되지못하고, 행위자의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성적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결국 이러한 억압을 제대로 참아내지 못하는 이들은 문명사회의 정상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히스테리나 강박증세와 같은 이상증세를 통해자신의 성적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거나, 문명화 사회에서 소위 '변태'라 불리는 성도착적 증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성적 불만을 표출하게 될 위험이 크다.11)

도덕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인간의 태생적인 성적 리비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명의 생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프로이드의 사상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모두 수용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성도덕의 그늘에서 발생하는 이탈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이기에, 성도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던 기독교의 특정시기에왜 그리도 성적인 방종과 문란이 성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발생하였는지, 그 아이러니를 푸는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거스틴 이후 서구 기독교는 수도원 운동과 성직자의 독신, 성도의 금욕적 생활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강조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도덕을 구축한 문명이 되었다. 중세 후기에 만연했던 마녀사당이나 정조대 관습은 당시의 성도덕의 엄청난 강도를 짐작하게 하는 예다. 이러한 중세의성도덕은 신 • 구약성서가 공통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선한 몸"과 "태생적인 성적 욕망의 긍

<sup>11)</sup> 지그문트 프로이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03, 65쪽 참고

정"이라는 핵심 가르침에서 벗어나, 초대교회가 그토록 경계했던 영육이원론을 기독교 신앙 과 신학에 수용하게 된 데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영육이워론에 바탕을 둔 성도덕은 태 생적인 성적 욕망을 원죄로 규정했던 어거스틴 이후 중세 교회 전체를 장악하여 결국 당시 의 성직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육체적 삶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혹은 음성화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지배적 성도덕은 그 원래 목적과 달리 모든 인간의 성적 욕망을 완전히 무화시키지 못하고 역으로 많은 성직자들의 성적 문란을 초래시 키고 만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에 이르러 마틴 루터로 하여금 교회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4. 맺음말을 대신하며 : 한국교회의 위기와 새로운 성윤리

최근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일부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두 갈래 의 반응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사건들을 해당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개 교 회나 교단의 차원에서 그 목회자의 임무를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식은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정치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범죄사실 에 대한 제대로 된 치리로 나이가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 목회자 들의 이러한 문제가 다만 특정 목회자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속 적인 성해방 앞에 교회의 전통적인 성도덕이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보 고, 다시 이전의 강력한 성도덕을 교회와 사회에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이 두 번째 해결책 역시 미봉책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강력한 성도덕이 장악했 던 중세에 오히려 성직자들의 성적 문란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전통적 성 도덕의 부활은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적 문란을 오히려 더 음성적으 로 확산시키는 억압적 기제로 밖에 작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제 3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선한 몸"과 "창조의 질서로서의 성"에 대한 성서 신앙을 저버린 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통전적 존재로서의 성서적 인간 관을 끊임없이 밀어내며 서구 교회사를 장악해 온 영육이원론적 인간관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고 나아가 여성에게 정조관념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제의 혈통을 통제하는 유교적 가족 제도를 결합시켜 '금욕적이고 성차별적인 성도덕'을 교회의 지배적인 가르침으로 삼았던 데 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저귀(생리대)를 찬 여성 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한 목사의 성차별적이며 동시에 반(反)육체적인 발언이 여신도를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들여 그를 자신의 라헬이라고 부르며 온갖 난잡한 성추행을 자행한 또 다른 목사의 범죄와 전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남성 목회자들에게서 자행되는 성적 문란과 범죄는 사람의 몸, 여성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전"(고전 6:19-20)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자녀 생산과 양육을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혹은 남성 목회자의 피치 못한 정욕을 은밀하게 해소하는 대상물로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성문화를 지배해 온 금욕적이고 성차별적인 성도덕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아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성문화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의 성문제가 중세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 문란의 데자뷰(déjà vu)인 것처럼, 그 해결책 역시도 교회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성직자들의 성 문란의 문제는 가톨릭교회 내부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분열, 보다 정확히 말해 새로운 개혁교회의 탄생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경제적 • 정치적 타락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성과 결혼 문제까지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대표적으로 존 칼뱅을 언급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인간에게 부여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며,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를 반대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하나님과도 연합하여 자기존재를 완성한다. 이에 결혼은 남녀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거룩한 관계인 것이다.12) 그러나 칼뱅은 거룩한 관계로서의 결혼 관계에서 성문제를 금욕적이고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바울과 같이 결혼한 부부는 자녀의 출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욕정에 휘말려 실수나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부간의 성관계를 유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13)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뱅이 부부간의 성적 만남을 다만 성욕의 실현(출산) 혹은 해소(쾌락)로 이해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한 몸과 한 인격'이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연합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칼뱅의 부부관을 21세기의 새로운 성윤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현대의 여성해방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16세기 칼뱅에게서는 여전히 가족과 사회,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고정된 성역할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의 가르침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유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한국 교회의 많은 남성 목회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완성하기 위해 만나는 존귀한 인격체이자 동반자(同伴者)로 여기지 못한 채, 목회를 보조하는 순종적인 동역자(同役者)로만 대하고 있다. 성장주의가 목회의 최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목회자의 아내는 교회 안팎의

<sup>12)</sup> 이오갑, 『칼뱅의 인간』, 대한기독교서회, 2012, 242쪽 참고

<sup>13)</sup> 위의 책, 252쪽.

많은 고단한 일들을 음지에서 처리하며 '사모'라는 변종(變種)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로 인해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아름답고 성적인 매력을 남편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 게도 발산해서는 안 되는 정숙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회의 상당수 목회자 부 부의 성은 억압되거나 유기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성도와 똑같이 "몸을 입은 존재"로서 그 들에게 태생적으로 내재된 성적 욕망은 부부관계 내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실수나 범죄에 휘말리게 하는 욕정으로 끊임없이 타락하는 위기에 노출되게 되었다.

결론을 맺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차별적이고 금욕 적인 전통적 성도덕으로 복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축복받은 실존이기에, 억압이 아니라 올바른 성관계를 통해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 제조건으로서 이제 한국교회는 "선한 몸"과 "아름다운 성"개념에 바탕을 둔 성서적 인간관 을 회복해야 하며, 나아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교회 제도를 실제적으로 개혁하여 남녀가 서 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성윤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성차별적이고 금욕적인 전통적 성도덕에 익숙한 많은 목회자 부부들에 대한 올바른 성윤리 재교육이 요구 되며, 동시에 새로운 목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성윤리 교육을 의무로 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 관념과 폭력적 행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이들을 목회 수련 과정에서 조심스레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를 거부했던 중세 가톨릭교회의 전처를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대 도 밟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 <목회자와 성> 심포지엄 주제발제 ②

#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을 위한 자원

**하 재 성** 교수 |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평신도 한 사람의 탈선보다 훨씬 크고 깊은 상처와 파장을 남긴다. 이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맡겨진 양때 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적 탈선은 피해자에 대한 "영적 폭행 (spiritual assault)"이다." "왜냐하면 [성 폭행은] 그 피해자 의 존엄성, 정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사회 문제화 되면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함과 능력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은 지도자들의 범죄 앞에서 하찮고 일관성 없는 종교적 가르침의 하나로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과 그들의 가정 및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신학교육 과정에서부터 목회자 후보생들의 경건 훈련을 통한 자기 성찰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기 발견을 위한 성격검사와 그에 따른 목회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 다.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오래된 자신의 상처 나 약점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 부부와 가정의 친밀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가정은 이 모든 유혹이나 목회자 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막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며 단위이다. 아 울러 범죄자에 대한 죄 용서의 신학과 더불어 피해자들을 위한 신학 즉 그들의 고통과 신앙 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적 탈선이 일어난 이후 목회자의 회복을 위한 자원은 예방의 자원에 비해 훨씬 제한적

이고 그 결과는 비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성적 범죄 이후 완전한 회복이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의 목회적 지도력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더구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없이 성급히 목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재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사후의 자원에서 목회자의 맹목적 복권을 위한 정치적 단계를 제외시키고, 그 대신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행위를 직면하고 정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 자들의 원통함이 충분히 보상된 후에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개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적, 사적으로 변화의 증거를 얻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심스럽게 내외적인 소명의 새로움에 따라 또 다른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만 원한을 가진 자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는 결코 아니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에서는 최대 이진아웃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또 한 번의 기회까지 남용하는 자는 약탈자이며 환자이다. 그리고 한 번의 사건에서 두 사람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권면이나 돌봄의 차원이 아니라 "글과 문서로 분명하게" 경고하고, "사본을 보관"함으로써 공식적인 사건 규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는 사역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아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 1. 목회자 성적 탈선의 특수성

성직자의 성적 탈선은 단지 한국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종교지도자와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종교단체의 회원 사이의 성적 탈선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 등 거의 모든 종교에 광범위하게 걸쳐 나타난다. 영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의 사역자 67%, 그리고 남침례교회(Southern Baptist)의 사역자 70%는 평신도와 성적 탈선에 빠진 목회자 한 사람 정도는 서로 아는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성적 탈선은 신학이나 교단의 보수나 진보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교회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다른 전문적 직업군 가운데서 보다 심각한 이유는 이런 행위가 영혼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직위의 권위"(position of authority)를 악용함으로써 비밀스러우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권위 및 권력의 남용이다.

목회자의 돌봄의 직책상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물론 그것이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돌봄의 주도권과 치료를 위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특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수 약탈자들에게는 목회자의 목회적 관계가 평신도 개인과의 경계 선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가해자들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 한 교회 목회의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특수한 위치는 성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 즉 "권 력"(power), "관계의 고립"(isolation), "고지식함 혹은 순진함"(naivete), 그리고 "슈퍼비전의 부재"(lack of supervision)의 '완벽한' 조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 신이 가진 권력의 행사를 감독해 줄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목회 사역의 치명적인 결 과를 낳을 수 있는 성적 탈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결핍의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이 일상적으로 요청받는 교회 사역의 양은 제한이 없다.

목회자들은 다른 대부분의 직업들에 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큰 직업 스트레스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동료들의 지지나 친구들과의 친밀함을 찾지도 않는 다.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목회자의 위험은 더욱더 높다.

목회 신학자 Margaret Kornfeld는 목회자의 고립이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사 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상황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말한다. 쉴 수 없는 업무로 인하여 탈진되는 것은 곧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필 요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쉼 없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상담하면서 정작 자신 의 양육은 등한시될 때 목회자의 탈진과 성적 탈선은 너무나도 쉽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평신도에 대한 권력의 남용이라 한다면 "탈진은 인식되지 않은 자 기-학대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주는" 사람들이다. 주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자 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전적으로 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동시에 그와 반대로 많은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어떤 이유로든 거절하거나 자신이 당연한 쉼이나 특권 을 누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죄의식을 느끼기까지 한다.

이런 외적 환경의 압력은 자기 학대와 자기 결핍을 일으키고, 무의식적인 그에 대한 보 상의식을 자극한다. 초창기에 그렇게 인격적이던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더 많은 책 임을 맡게 되면서 권위의식(entitlement)으로 신속하게 전환을 일으킨다. 상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목회자는 무의식 가운데 심지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불만스러웠던 욕구의 충족까 지 덩달아 얻으려는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 2. 신학교육의 자원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적 탈선 예방의 자원은 역시 신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목회자를 형성하고 교육시키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 신학 교육이다. 목회자의 목회 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는 신학교에서 이루어진다.

### 1) 목회자의 건강한 성

성이란 "우리 삶에서 통합된 자아의 일부이다." 모든 사람은 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평생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성적인 존재로 자라가고, 자기 인식을 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성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경험되는 새로 운 언약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을 하게하고, 이로써 그 성직자 부부의 성적 표현과 만족을 방해하게 된다." 자신의 성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자칫 성욕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을 불러일으키고, "성적인 방탕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성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성에 관한 조그만 죄의식에도 당황스러워하는 도덕적인 절대주의의 철학과 신학교육은 오랫동안 기독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 "몸을 방치, 무시, 혹은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기독교적 금욕주의와 함께 그리스-로마 철학의 근간인 스토아주의의 "열정의 정복"(the conquest of the passion)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구원은 은둔자적 감정인 무정(apathy) 평온(tranquility)의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성적 욕구는 건강하거나 성숙한 인간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성적 쾌락을 동물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오직 자손의 출생을 위해 부부가 성 관계를 갖는 것 외에는, 용 서받을 만하지만 여전히 죄로 여겼다. 그러나 "중세에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적 욕구를 억누 름으로써 교회는 수도원 곁에 고아원을 운영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육체적, 성적 필요의 중요성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John Chrisostom)은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가치는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도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상으로 결혼한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로 부름 받은 자임과 동시에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신학적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사역과 목양 사역이 결혼의 언약 안 에서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통합적으로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두 영역 모두 건강하고 인격적이어야 하며, 목회 사역과 성적 존재로서의 결혼 생활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사역의 열정과 보람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부부생활의 친 밀감과 사랑이 목회 사역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 의 필요를 과도하게 수치스러워하거나 거룩한 말씀 사역에 조화시킬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부끄럽게 여긴다면 목회 사역과 목회자 자신은 이원론적으로 괴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괴리가 외면적으로는 금욕주의적 메시지나 극단적인 청결의식으로 나타나겠지만 내면적으로 는 정반대의 모습, 즉 성적 쾌락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강박적 방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성은 결코 목회자의 삶이나 가정에서 괴리되거나 소외되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상통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일 주일에 혹은 일생에 몇 번의 오르가즘을 누려야 하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정도, 양심의 요구,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성적 욕 구는 만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목회자의 삶에서도 성적인 만족은 중요한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과 성적인 만족 을 괴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려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기도를 핑 계로 부부가 잠시 별거하는 것 외에는 다시 합쳐야 하는 것은 목회자 부부에게도 마찬가지 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단순히 몇 번의 성적 쾌락을 더 얻을 것인가에 성적 존재로 서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의 인격적인 상호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관 계 속에서, 사역하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만족은 일관되게 이루 어져 가야 한다.

# 2) 목회신학을 통한 권력 구조 이해

프린스턴 신학교의 목회 신학자 도널드 캡스(Donald Capps)는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 자들이 평신도의 고통을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성적인 관계 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평신도의 위치로 내려가 서 함께 육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목회적 동기에서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정말 긍 휼과 공감이 충만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목회적 권위와 말씀 전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방식대로의 영혼 돌봄"을 실행할 때, 그것은 곧 취약한 영혼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 결국 목회자가 스스로 용납할 만한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극히 잘못된 나눔과 돌봄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취약하고 상처 입은 평신도는 더욱 의존적이고 병든 영혼이 될 것이다. 반대로 목회자 자신의 권력은 그 평신도 개인에게 훨씬 파괴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가리켜 캡스(Capps)는 "목회적 권력의 모순"(the paradox of pastoral power)이라고 명명하였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돈 브라우닝(Don Browning)과 같은 윤리학자 및 목회신학자나 밴더빌트 대학교의 에드워드 팔리(Edward Farley)와 같은 학자들은 실천신학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 중 Farley는 실천적 해석학에 있어서 사역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과 상황에 대한 분석적인 방법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신학교육으로는 현장의 상황에 경험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교묘한 실천적 왜곡을 분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성경 사용에 익숙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탐욕과 사단적 동기를 얼마든지 포장할수 있기 때문에 때로 성경적 명분만으로는 선명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현실과 경험의 해석에 있어서 실천신학적 방법론의 공백(lacuna)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Farley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추행위'(the reflective activity of the believer)와 '상황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situationality)을 요청한다. 그 상황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포함된 권력 구조의 이해와 분석이다.

Farley는 지적하기를 인간의 상황은 범죄로 인한 "타락(corruption)과 구속(redemption)"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통적 신학의 틀을 가지고서도 인간이 가진 "우상, 자기 이익의 절대화, 자기 인종 중심주의,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참여"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천적 해석을 위하여 "자기-의식적(self-conscious), 자기-비판적 (self-critical), 그리고 규율적인(disciplined)" 상황해석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Farley는 실천 신학에 있어서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성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성적 쾌락을 얻는 것보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탈하려는 권력 추구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강간이란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공격하는 폭력적 범죄이다." 특히 연약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성을 매개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그것이 완력이든 사회문화적인 남

성의 힘이든, 아니면 거꾸로 나이 든 여성에 의한 어린 남자 아이에 대한 나이 권력이든, 어 떤 종류든 그 권력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강간이다. 그러므로 "강간은 폭력적인 죄이며, 오만함과 절망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강요된 성적 행위 이외에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평신도의 성적 결정권이 매우 교묘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기독교적 자원은 해방의 자원보다는 억압의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자 여성이 문제를 더욱 왜곡시키거나 판 단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목회자의 성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목회자 후보생들 은 목회 현장에서의 성적 문제가 결코 아름다운 로맨스나 영혼을 돌보는 수단이 아니라, 자 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남용되고 악용될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3) 심리적 역전이 이해와 목회자의 자기 성찰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과연 예방 가능한가? 마일즈(Miles)는 단언하기를 "성적 탈선의 행 위는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성직자가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깨어 있을 때이 다." 특히 성적 탈선과 관련하여 목회자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선 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명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어떤 행동이 성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성 범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 (definitions)가 법과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강력하면서도 명문화된 법이 있어야 하 고, 용납될 수 없는 성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연구가 교회 지도자 들과 평신도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목회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감찰할 수 있어 야 한다. 프로이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 어 올려,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환상적 욕구가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자신의 사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요청해서 는 안 된다.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상담자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라고 부른다. 이는 환자가 일으키는 전이(transference) 감정에 대한 상담자의 응답으로서, 과 장될 정도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반응을 가리킨다. 이런 전이-역전이의 대면 상황은 목회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과 같은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은 건강한 목회를 위해 "아니오!"를 구사하는 것이다. 이성의 유혹과 그에 따른 상호간의 환상에 대해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역전이의 실현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는 프로이트 당시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났으며, 프로이트는 그와 같은 분석가들의 미성숙함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목회자는 성 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생기는 역전이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 없이 있는 그 대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역전이의 감정을 성도들에게 공개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미성숙한 일이다. 역전이의 감정은 목회자의 내면에서 인식되고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의 성적 탈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전이적 증상 행동들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이성에 대한 꿈이나 심방을 가기 전에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형태로 둘 만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합의되지 않은 심방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상담에 할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성도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성적 타락을 정죄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역전이적 관심을 노출시키는 일일 뿐이다.

특히 다른 죄보다도 음행 죄는 좀 더 큽니다. 다른 죄는 모두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만은 자기 몸으로 짓는 죄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거기다가 자손까지 죽이는 삼박자로 망할 짓입니다... 여자들도 몸 빼앗기고 빈 병 신세 되지 마십시오. 빈병 되면 엿장수 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 남자들이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따지 않은 콜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남자의 평균 섹스 대상이 17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이 정도이니 소위 플레이보이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위의 설교는 음행의 죄에 대한 선명하고 희화적이기까지 한 경고의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설교자는 심판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 금 그 메시지에 몰입하게 하는 흥미로운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설교자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고, 성에 대한 수치스런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 고 프랑스 남자들과 플레이보이들에 대한 설교자의 질문 속에는 자신의 관심이 매우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탁월한 설교의 한 부분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설교와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와 같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의식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성도의 관계는 위협당할 가능성이 크다. 혹시 목회자에게 채워지지 않은 다양한 결핍들이 있다면 이런 관계에서 성도의 필요를 생각하기. 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 채우기 위해 비윤리적인 선택을 감행하게 된다. 목회자는 결코 성 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치유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와 말씀의 자원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역전이적 욕구들을 인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 내면에 흐르는 감정들 을 언어화시키고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전이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현실 관계에서 활성화되 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적 필요를 확인하고, 긍정하되, 영적 자원들을 통해 끊임없 이 자신과 사역을 보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신뢰할 만한 멘토나 슈퍼바이저를 통해 특정한 관계에서 일어 나는 감정적 필요들을 함께 탐색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목회자의 배우자는 가 장 가깝고 유익한 멘토가 될 수 있다. 목회자인 남편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정직한 시각으로 남편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설교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 러나는 여러 역전이적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경계하는 데 유익하다.

# 4) 피해자 및 희생자들을 돌보는 신학

사실 기독교는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거나 위로하는 예식이 불교나 무교, 심지어 천주교에 비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물론 기독교의 신학이 죽은 자를 위로하거나 그 들의 한을 달래는 것과 같은 의식들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의 문제는 예식의 결핍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피해자 내지 희생자 중심의 사고 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회는 고통스런 폭력의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은 반드 시 지켜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가해 자와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신학을 통해 사죄와 용서의 과정을 명시해 오면서도 피해자의 원 한을 경청하고 정의와 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심을 쏟지 못했다. 물론 성경에서 피해자들의 원통하심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서나 그들이 받아야 할 관심에 대해 신학은 거의 침묵해 왔다. 다소 단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적 성향에 대해 재미 신학자 앤드류 박(Andrew S. Park)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죄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곧 거의 죄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죄인들/압제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어서 희생자들에게는 거의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목회상담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울부짖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나누거나 가해자의 불의한 행동을 증언함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님 을 지적할 것이다. 이런 지지는 상담자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소통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 범죄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접수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명민하고 잘 훈련된 권익 옹호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고 지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침묵을 깨 트리고 외형과 내면의 진실을 토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죄책 감과 고통을 치료하는 길이다.

# 3. 가족, 교회 및 관계의 자원

목회자의 가족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자체가 특권이며 동시에 또한 부담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가족은 성도들의 기대와 사랑의 대상이며, 자칫 자녀들의 언행이 지적을 받을 때는 부담스러운 긴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어항 가족(living in a fishbowl)이라 한다.

회중으로부터 혹은 그 공동체로부터의 과도한 기대 아래 사는 것은 성직자 가족들에게 매우 크게 당황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가족 생활은 이상형이나 모델로 비쳐진다... 두 번째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은 너무나 무거운 사역 일정으로부터 오는 시간의 압박이다. 그것은 거의 24시간 대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역자의 일에는 정해진 결말이 없다.... 이런 압박감이 성직자 가족들에게는... 주말과 휴일일수록 더욱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떨어져 있도록 요구한다.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목회라는 영역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소홀한 가족관계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외로워지기 쉽다. 친구를 사귀 고 싶어도 교인들 사이의 오해로 인해 일부 교인들과 친밀해질 수 없다. 그럴수록 목회자는 가정에 집중하고, 자신의 아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수적 성장에 대한 강박적 욕구로 인해 과도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교회 의 형편상 목회자가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든 가 족은 삶에서 불어오는 온갖 시험과 파괴적인 유혹들을 이기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인 자원이다. 특히 부부간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친밀감은 이성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하 는 막대한 자원이 된다.

사실 목회자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린 소통, 효과적인 갈등해결 모 델, 상호적인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관계의 유지와 목회의 보호를 위해 목회자는 자신의 위치나 형편을 적당한 때마 다 배우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인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을 다름 아닌 자신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고 기도해야 한다. 시 간을 정하여 함께 외출을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일정하게 실천하고, 자녀들 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비록 목회자 부부의 이혼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들에 비해 목회자들의 결혼은 더 성공적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업에 있어서 다른 가정 의 자녀들보다 훨씬 높은 성취도를 보여 준다. 하지만 목회자 가족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다 양한 요소들은 늘 상존하고 있다. "시간의 운영, 가족의 일상사, (목회자인) 남편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의 사역이 가져다주는 정당성" 등이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가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 무엇보다 한국적 목회의 상황에서 목회자의 가족관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하고, 목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혹은 장시간 개인 상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 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교인 수칙을 통해 목회자와의 심방이나 면담에 대한 일정한 주의사 항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목회 상담에 대한 한계를 직시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분명하게 목회 상담전문가나 기독교의 믿음과 소신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나친 감정의 개입이나 낭비를 막고, 일정한 목회자의 거리를 통해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상실이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시간과 자원을 허용함으로써 목회자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여 목회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신 자신을 돌보라. 안식의 시간을 찾으라. 기도하라. 편안히 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 교회 밖에서의 관심사들을 개발하라. 책임 있게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채널을 찾으라.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강력한 관계를 세우고, 결혼했든 안 했든 친구들과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라.

더 나아가 목회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망을 구축 및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동행해 온 신학교 동기나 선후배 가운데 좋은 친구나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은 목회자 성적 탈선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의 시간은 미래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위해 중요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는 중요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 4. 사후 수습의 우선순위와 치료의 자원!

한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다. 특히 직위와 정보를 가진 가해자인 목회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 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비난한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틀림없이 매우 비범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변을 듣게 될 거라는 걸 기대해야 한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 이후의 자원이란 진실과 정의를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가해 자의 거짓된 입을 다물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열게 하며, 피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아니 라 가해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도록 모든 상담자나 중재자들 및 교회 성도 들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많은 교회들과 교회의 상위 기관이면서 목회자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들이 그렇게 해 왔듯이, 범죄한 목회자를 방치하거나 아무런 처벌 없이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묵인하는 것은 그 큰 범죄에 동참하는 일이다. 정의가 세워지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만일 가해자라면 사역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나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이 적은 다른 일을 찾으라. 당신이 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당신은 결코 당신이 저지른 상처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없다. 당신의 죄를 되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성실한 태도로 행동하라. 회개하라. 삶을 바꾸라. 그리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범죄는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특권과 평신도의 사생활에 대한 접근성에 기대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약탈할지 알고 치밀하게 이용하는 성 중독자 내지 성폭행범의 범죄 심리를 목회적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죄하기 시작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지능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범죄에로 방치한다. 그리고 그 방치는 곧 끊임없이 희생자를 찾아 거룩한 목회의 언어와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끝없이 이루고, 피해자의 영혼은 신음하며 죽어가는 지경에 방치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 사체까지유기 내지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은 결코 목회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약탈자들이며 성도착자들이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다. 몇 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해도 이들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목회자의 옷 곧 양의 가죽을 입고 편안히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자신들이 익숙해지고 전문적으로 훈련까지 받아 온 그런 약탈의 환경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죄와 용서의 신학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을 아무런 후회 없이 먹어 치우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의 신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 치우는 포식자들이다. 교회나 노회는 오직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눈물을흘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선명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치리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며 2차, 3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침묵을 깨뜨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 침묵은 병적인 것이며, 여기서 병이란 가부장제도 아래 피해 여성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외려 여성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진실의 규명이 무시당할 경우 "성폭력의 문제가 무시될 때 75%의 경우 상황은 악화된다."

그와 더불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성급히 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에는 시간과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성이 필요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고소 사건을 입증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용서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거나 용서에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만] 가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꺼이 직면하고, 가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 상담치료를 받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성 희롱에 관한 상담사와 집단에 위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억할 것은 성공 혹은 "치유"의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상담치료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상담치료의 목적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의식적 자각 수준을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개는 조용히 골방에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학적 체계 속에서 스스로 용서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그는 교통법 위반자가 교통 규범에 대한 재교육을 받듯 그 가해자는 삶에 대한 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론 그 상담과 복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성적 탈선의 경험을 가진 목회자의 완전한 치료는 사실상 드물고 매우 어렵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해 당사자와 양쪽의 가족들이다.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자의 가족 관계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자신은 단독으로 죄를 저질렀다 할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생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간다. 그러므로 긍휼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가족들은 모두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가해자의 가족들은 자신이나 가해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신뢰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안전이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가족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 없이 다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섶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더 이상 지능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 상처와 절망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 절망의 깊이 보다 더 낮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직면해야 한다. 이 것은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직면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직면, 그리고 자기로 인하 여 실족하고 평생의 상처를 안게 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그리고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 양떼를 맡기신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사죄를 의미한다. 🕎

### <목회자와 성> 심포지엄 주제발제 ③

# 목회자의 성 스캔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 **직 한** 상임대표 |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 1. 기독교윤리와 실천의 근거와 동력

- 1.1. 정감(정직과 감사) (PPT1) 자료집 40페이지
- 1.2. 온정주의와 매도와 정죄의 양극단 (PPT2) 자료집 42페이지
- 1.3. 정반합의 프레임이 아닌 정감합의 프레임 (PPT3) 자료집 43페이지 1.3.1. 수가성 여인(죄를 범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감적 반응법
  - 1.3.2.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감적 반응법
- 1.4. 죄지은 자에 대해 정감인의 자세와 방법 (PPT4) 자료집 46페이지
  - 갈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개역개정)
  - 갈6:1,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 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표준새번역)

PPT 정직과 감사 1



# 엡4:13-15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u>온전한 사람</u>이 되어 <u>그리</u> <u>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세까지</u> 이르게 됩니다.

## speaking the truth in love(NIV)

15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장의 목표

온전한 사람의 특징(DNA)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

# 막9: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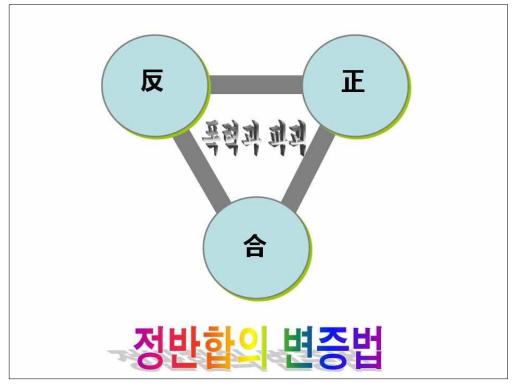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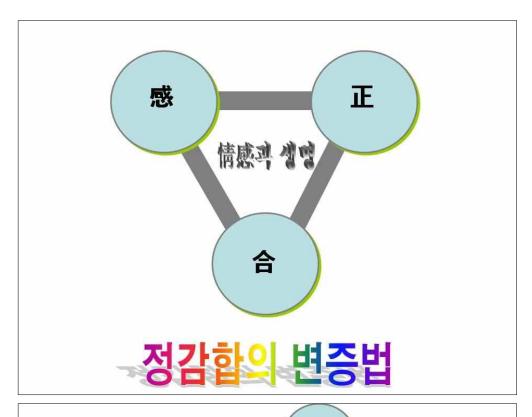
진리

PPT 한국교회의 양극단 태도 2



정반합 Vs 정감합 **PPT** 3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正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생략)
- 4: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4: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 **요8:3-11**



- 3 울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 땅에 무현인가를 쓰셨다. 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 라"
- 8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 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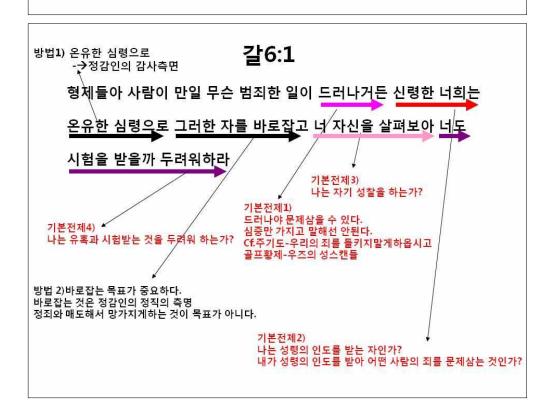
PPT 갈6:1의 정신과 원칙

방법과 온유한 심령으로 구성감인의 감사측면 항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기본전제1) 드러나야문제삼을 수 있다. 심중만 가지고 말해선 안된다. (연주기도 우리의 죄를 들키지말게하읍시고 골프황제-우조의 성스캔들 방법 2)바로잡는 목표가 중요하다. 바로잡는 것은 정감인의 정직의 측명 정죄와 매도해서 망가지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 갈6:1(표준새번역)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e)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e. 또는 신령한 사람인 여러분은. 또는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PPT 치유통합론 5



## 2. 왜, 우리는 종종 정감적으로 못하나?

2.1. 예수를 입으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안 믿는다. 따라서 정감인이 이주 소수이다.

2.2. 이른바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2.3. 오늘날 교회와 교단의 치리와 정치 기능이 워낙 역기능적이다.

2.4. 우리는 존경받는 어른의 부재시대 즉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

2.5. 권위 있는, 전문적인 AGENCY와 AGENT가 없다.

2.6.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종 자칭 AGENCY라 하는 AGENCY들이 너무 편향적(예: 선지 자적일지는 모르나 제사장적이지 못하다)이고 성급하고 미성숙해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사이버 상의 무법천지적인 상황이 어떤 사실을 왜곡, 증폭, 재생산과 확산시키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와 교회는 거짓과 분열의 영에 의해 아주 심각하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도와 중보와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적합한 토양을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

### 3. 목회자의 성 스캔들에 대한 대처 사례들

#### 3.0. 정의와 사랑의 4상한 박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정의가 있다	BEST	WORSE/BETTER
정의가 없다	WORSE/BETTER	WORST

#### 3.1. WORST CASE

정의와 사랑이 다 없는 케이스로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된 사례 Cf. THE WORST OF THE WORSTS:

#### 3.2. WORSE OR BETTER CASE

정의는 섰으나 사랑이 없는 경우, 또는 사랑은 있으나 정의가 없는 경우 권위 있는 자에 의해 은밀하게 처리되었으나 뭔가 찜찜한 면들을 많이 남긴 사례 (온전함이 결여된 '법치')

#### 3.3. BEST CASE

정의와 사랑이 다 만족된 케이스

#### 3.3.1. 한국적 케이스

'법치'와 '인치'의 통합이되 비공개적으로 그러나 투명하게 처리됨.

이른바 '어른'과 그가 만든 '치리와 회복을 위한 위원회'에 의해 스캔들을 일으킨 지도자가 공적 활동을 내려놓게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와 멘토링을 받게 함. 마침 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공적 활동을 재개하여 성공적으로 그의 은사와 지도 력이 좋은 사역으로 나타나게 한 사례.

#### 3.3.2. 미국의 케이스

THE BEST OF THE BESTS: 교회나 공동체의 공적인 절차와 조취가 이주 성숙하고 전문성을 갖춘 팀에 의해 다뤄져서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다 만족 시킨 사례. 예) 고든 맥도날드

### 4. 어떻게 해야 하나?

4.1. 한국교회의 토양과 관련해 다음 같은 기본 인식과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교회와 교단과 교계의 공교회적 집단이 목회자의 스캔들을 온전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절차만 밟아 이 이슈를 다룬다면 거의 문제를 일으킨 담임목사를 위한 온정주의적 해결책이나 '정치적' 결론이 나올 것이 거의 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렇다고 그 공교회적 조직의 공적 특성을 간과하면 공적 인물이 없이 문제를 풀었다 해도 일시적이고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젠기는 그 이슈가 다시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거론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 자들 뿐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를 놓고 사단이 일할 여지가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한국교회나 사회는 아직 법치사회가 정착이 안 되었고 다분히 인치적 해결책이 통하는 면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선 인치적, 법치적 양면이 잘 조화된 긍정적 의미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쪽 당사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도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 자일지라도 그를 향해 정죄와 매도하는 일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한국사회는 SNS와 인터넷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거의 무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왜곡과 확대와 엉뚱한 재생산이 급속도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결과 지혜 속에 '비공개적이지만(즉 까발리지 않고) 투명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한 방에' 날라 갈 수 있다는 점이다.

#### 4.2. 어떻게 해야 하는가?

4.2.1. 이상의 인식과 전제점들을 받아 들이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캔들이 일어난 공동체나 그 당사자와 연결된 인맥 중에 권위 있는 정직과 감사, 용기와 배려의 '어른' 또는 '어른들'이 있느냐이다. 이 '어른(들)'이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 자의 죄는 죄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제대로 치리(그 수준과 정도, 방법 등)와 회복의 절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돕고 회개의 열 매를 확인하며 피해성도와 또 다른 피해자인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용서까지도 이끌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어른(들)'이 있다면 사실상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다소 철저한 회개를 주저 하여도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어야하는 것이지만 진정하고 완벽한 회개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른(들)'의 부재이다. 즉 사사시대와 같은 토양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탓을 한국교회의 풍토로만 돌릴 수는 없다. 누구든지 진정한 성경적 지도자라면 멘토가 있어야 하고 자기와 함께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책무그룹(ACCOUNTABILITY GROUP)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이런 멘토나 책무그룹이 평소에 없는 지도자가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2.2. 그 '어른'과 '어른들'은 공교회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서 신뢰할만한 인물을 '치리와 회복을 위한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교회나 교단이아닐지라도 존경할만한 또는 이런 면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만한 지도자들 소수를 포함시켜서 함께 '치리와 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물론 교회나 교단의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나(이런 의미에서 법치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공개적이긴 하지만 '법치'와 '인

치'를 조화시킨 준 공교회적인 위원회이다.

- 4.2.3. 아마 이 준 공교회적 위원회는 초기에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의 치리 수위와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공적 조취를 취해서 가능한 한 뒤탈이 없도록 법치적인 필요를 채워야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것은 초기 단계에 불과함을 알아야한다. 이 위원회가 볼 때 그 후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의 회개가 진정하다고 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한 후 그 다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4.2.4. 문제는 '어른(들)'이 없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그(들)의 지도를 받아들였다가 나중 엔 그(들)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그(들)의 지도와 치리와 회복의 권위를 거부한 케이스이므로 그 사람은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드문 경우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뭔가 억울한 점이 있어서 또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들)의 지도를 거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지도를 거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 교회와 공동체의 분열이다. 또는 나 눠져서 또 하나의 교회와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두 개의 교회와 공동체는 필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일이 일 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제3의 AGENCY'의 역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그런 AGENCY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AGENCY가 성경적 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성숙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느냐이다. 그러나 아직 이 점에 있어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선무당식의 AGENCY로 역할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에 입각한 전문성과 성숙함을 갖춘

MEDIATING AGENCY의 필요성이다. 한국교회에는 아직 공신력 있는 기구는 없다. 그러나 근래에 한 예로써 사단법인 한국피스메이커(이사장: 이철 목사)의 사역에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런 AGENCY가 더 역량이 커져서 혼란스러워진한국교회와 교계의 상황이 좀 더 바람직한 면에서 정리 정돈되길 바란다.

- 4.2.5.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가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치리와 회복을 위한 위원회'에서 지도를 잘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성도와 그당사자의 가족 피해자들을 잘 치리하고 잘 회복시켰다면 그 지도자의 공적 활동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공적 활동이란 그 지도자가 속했던 교회나 공동체에서의 공적 활동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의 공적 활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 (1) 전에 섬겼던 교회나 공동체에서의 공적 활동을 회복시킬 경우고든 맥도널드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그 안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간 '치리와 회복위원회'가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공적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꾸준하게 3년 간 고든 맥도널드 및 피해자들을 감독과 상담과 케어를 통해 회복시켰고, 마침내 같은 교회에서 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 CEREMONY OF RESTORATION을 가졌고 이 사실을 관련된 네트워크에 공포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공적 활동의 범위는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어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갔다.
  - (2) 전에 섬겼던 교회나 공동체 밖에서 공적 활동을 회복시킬 경우 이 경우 진심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축복해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 활동에 회복되는 자나 이것을 함께 공증하는 자들이 오직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겸허함과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셔서 WOUNDED HEALER로 기름부어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태도를 다같이 갖는 것이다.

그리고 전의 교회나 공동체 밖에서 공적 활동을 회복시킨 후 그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문제를 다시 일으켰거나,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거나,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곱지 못하여 냉소주의적 분위기가 그 주변에서 일어날 경우 등)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의 전적인 책임은 문제를 다시 일으킨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치리와 회복 위원회'가 너무 성급히 했거나 안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했거 나 미숙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론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6:1의 정신과 원칙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 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 라")을 준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정감적 자세 가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요청된다. 공론화 후에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에 맡 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슈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 결어

목회자의 스캔들도 문제이지만 목회자의 스캔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더 문제일 수 있다. 스캔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7계를 범한 문제이지만, 스캔들을 다루는 우리들의 태도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율법폐기론자가 되거나 정반대로 바리새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 다. 양극의 잘못으로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양비론에 빠져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대 속성을 용기있게 통합하는 양인론(兩引 論)의 MEDIATOR가 되길 기대하신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이 스캔들을 대하는 태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 이슈에 있어서 양극단의 병폐와 용기 없는 양비론자의 모습이 넘쳐 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기 있는 양인론자 (GREAT COMPRESSOR)를 원하신다. 그들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 프레임(이 프레 임에 갇힌 자들은 알아야 한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원흉은 집요하게 세상을 천국으로 만 들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속에서 정죄와 매도를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질 타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론 세속주의자들(이들은 이 세상이 곧 천국이라는 생 각 속에 이 교회와 세상을 속물들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로부터 융통성이 없는 자로 무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양 편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용기 있게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스캔들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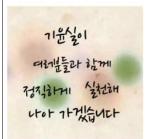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문위원(종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 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이사장: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백종국(상임,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일절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려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E-mail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앙코르지, 중질만화지)**에 인쇄했습니다.

